

기혼여성의 가족의례 구성요소에 따른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배재현^{1*}, 박세정²

¹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²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사육과

A Study on Family Functions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Family Rituals with Married Women

Jae-Hyun Bae^{1*}, Se-Jeong Park²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aegu Science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Childcare, Yeungnam University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례, 가족기능,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족의례의 구성요소가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의례를 통해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혼여성 136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변량분산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례 구성요소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가족의례 구성요소는 가족기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적 투자와 계획성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았고, 관습성과 감정적 투자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의례 구성요소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적 투자와 관습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감정적 투자와 관습성, 계획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mily functions and satisfaction of life according to the types of family ritual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amily rituals on family function and satisfaction of life.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36 married women. SPSS Win program with M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in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1)The types of family ritual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and satisfaction of lif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s of family economy. (2)The influence of family ritual on family functions differed according to the subtype of family rituals. (3)The influence of family ritual on satisfaction of life differed according to the subtype of family rituals. This study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ffect, routine, and deliberateness for increasing family fun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Keywords : Adaptability, Cohesion, Family function, Family ritual, Life Satisfaction

1. 서론

현대가족의 특성 중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가족기능의 축소 및 약화이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족단위로 수행되던 많은 기능들은 가족원 개개인의 행복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Jae-Hyun Bae(Taegu Science Univ.)

Tel: +82-53-320-1794 email: cinespac@tsu.ac.kr

Received September 13, 2016

Revised (1st September 26, 2016, 2nd October 5, 2016)

Accepted January 6, 2017

Published January 31, 2017

을 우선시하고 평등과 애정, 친밀한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가족의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다[1].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증가 혹은 재취업은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에의 부담감들을 증가시키고,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경쟁적인 교육제도로 겪게 되는 자녀들의 스트레스도 부모들이 간과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들의 어려움은 사회변화와 함께 어찌면 당연히 견디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거나 도움을 요청할 지지자가 주변에 없다면, 이들에겐 정말로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2]. 부모는 ‘절대 자살을 할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수사 끝에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성적에 대한 고민 끝에 교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답안지를 수정한 사건이 발생하였다[3]. 이 두 사건속의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질적인 상호작용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그리고 인구보건협회조사[4]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33.7%가 산후우울증으로 자살충동을 느꼈고, 이중 2%는 실제로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원인으로서는 ‘아이 양육이 어려워서’ 42%, ‘남편의 늦은 귀가와 무관심’ 28.9%로 응답하였고, 우선 필요한 지원으로는 ‘남편 및 가족도움’을 76.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기혼여성들의 이러한 고민들은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라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상황들이다. 하지만 평소에 가족 간의 지지와 대화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위기상황에서도 도움 요청이 용이할 것이고 이후에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예방적 역할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족의 긍정적 기능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족원들이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좀 더 친밀감을 느끼고 결속을 다지며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서 힘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그 가족만의 의례활동을 통해 서로의 애정과 친밀감을 확인하는 것이 가족의 긍정적 기능들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흔히 가족의례는 반복적으로 행해져 그 가족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5]. 그리고 가족의례는 학자들마다 가족의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족축하의식, 가족전통, 정서적 상호작용 분류하기도 하

고[6], 생애주기 사건에 대한 특별한 의식, 문화적 민족적 전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7]. 주부들이 가정의례를 잘 수행할수록 가족응집성이 높다는 연구[8],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족결속과 정서적 친밀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9], 가족식사활동이 가족내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가족결속과 가족원들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0]를 볼 때, 가족의례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가족의례의 유형을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하여 현대가족들이 주로 행하는 의례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족의례 자체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가족의례 활동 시 이뤄지는 긍정적인 의사소통들이 가족원들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증가시키므로[11] 가족의례 활성화를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족의례의 유형이 아닌 가족의례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른 영향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족의례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업과 관련된 시간부족,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부족 및 원거리 통학이나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여러 상황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족의례 참석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가족의례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례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진행되었다면 가족들은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기능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

가족의례를 통한 부부간,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증가는 기혼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증가시킨다[12].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가족의 결속과 친밀감을 높여주게 되어 바람직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이끌어 줄 것이다[9]. 하지만 기혼여성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로 삶의 전반적인 만족을 예측할 수는 없다. 결혼초기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생활주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자녀의 출산 및 양육기가 되면서 점차 하락하다가[13] 중년기 이후 점점 높아지는 U자형 곡선을 보인다는 연구[14],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이 자녀의 학령기 무렵 노동시장 재진입을 시도한다는 연구[15]를 볼 때,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함께 가족의례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기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변인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족의례의 구성요소가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대가족들이 주로 참여하는 가족의례들을 그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개인에게 혹은 가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가족의례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례 구성요소, 가족기능 및 삶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기혼여성들의 가족의례 구성요소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기혼여성들의 가족의례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1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13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가족의례 척도

가족의례 척도는 Fiese[16]의 가족의례 질문지(Family Rituals Questionnaire : FRQ)를 사용한 Choi[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5개의 가족의례(저녁식사의례, 주말여가의례, 가족휴가의례, 가족생일의례, 명절의례)가 6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총30문항이다. 정규성은 가족의례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가이고 관습성은 가족의례시 정해진 행동패턴이 있는가이며 계획성은 가족의례에 관련된 준비와 계획의 정도이다. 참여기대는 가족의례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의 기대 정도이고 감정적 투자는 가족의례 활동에 대해 가족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투자하는 정도이며 의미부여는 가족의례 활동에 대해 그 가족

나름의 의미를 붙이는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례 구성요소의 실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정규성 .73, 관습성 .71, 계획성 .78, 참여기대 .76, 감정적 투자 .82, 의미부여 .79였다.

2.2.2 가족기능 척도

가족기능 척도는 Olson, Portner, Lavee[17]가 개발한 FACES 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III)를 사용한 Kim[1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각 10문항으로 구성된 총20문항이다. 가족응집성은 가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친밀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적응성은 가족체계가 당면한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갖고의 내적 기제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가족응집성 .73, 가족적응성 .82였다.

2.2.3 삶의 만족도 척도

Diener, Emoms, Larsen, Griffin[19]의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한 Choi[2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3이었다.

2.3 자료 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례 구성요소, 가족기능, 삶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고, 가족의례 구성요소가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40~45세 미만 39%, 30~40세 미만 37.5%, 30세 미만 5.9%, 50세 이상 17.6%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이상 52.9%이었고, 고졸이하 25.7%, 전문대졸이 21.4% 순이었고, 자녀수는 2명 58.1%, 1명 23.5%, 자녀 없음 11%, 3명이상 7.4% 순이었다. 평균소득은 501만원 이상 58.1%, 301~400만원 16.2%, 401~500만원 10.3%, 200만원이하 6.6% 순이었다. 직업은 전문기술직 34.7%, 사무직 17.6%, 판매와 서비스직 16.2%, 전업주부 14%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36)

Variables	Categories	N(%)
Age	>30	8(5.9)
	30 ≤ <40	51(37.5)
	40 ≤ <50	53(39.0)
	50 ≤	24(17.6)
Level of schooling	≤High School Graduate	35(25.7)
	College Graduate	29(21.4)
	University Graduate	72(52.9)
Children	0	15(11.0)
	1	32(23.5)
	2	79(58.1)
	3 ≤	10(7.4)
level of family economy	≥200	9(6.6)
	201 ≤ ≤300	12(8.8)
	301 ≤ ≤400	22(16.2)
	401 ≤ ≤500	14(10.3)
	501 ≤	79(58.1)
occupation	Housewife	19(14.0)
	Manufacturing/Skill job	1(0.7)
	Service job	22(16.2)
	Self-employment	7(5.1)
	Office job	24(17.6)
	Technical job	47(34.7)
	Managerial post	1(0.7)
	Professional	9(6.6)
Non-response	6(4.4)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례 구성요소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가족의례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다. 가족의례 구성요소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0세 미만이 40세 이상보다 정규성과 관습성을 더 많이 하였고, 30세 미만이 50세 이상보다 참여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였으며, 30세 미만이 30세 이상보다 감정적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다. 가족기능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가족의례 구성요소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가족의례의 구성요소와 삶의 만족도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지수를 이용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2.15이므로 종속변수는 자기상관이 없는 독립적이다.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0~1.73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정적 투자와 계획성의 순으로 영향을 주며, 감정적 투자는 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설명력은 47%이고, 계획성이 추가되어 53%를 설명하였다. 가족의례시 감정적 투자와 계획성이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Durbin-Watson 지수가 2.0이고, VIF 지수는 1.0~2.31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습성과 감정적 투자 순으로 영향을 주며, 관습성은 가족 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설명력은 24%이다. 감정적 투자가 추가되어 26%를 설명하였다. 가족의례 시 관습성과 감정적 투자가 높을수록,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Table 2. Difference of Family Ritual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6)

Variables	Categories	N	Occurrence		Routine		Deliberateness		Attendance		Affect		Symbolic significance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Age	>30	8	3.50(.55) b		3.40(.67) b		3.25(.59)		3.53(.65) b		3.68(.44) b		3.55(.53)	
	30 ≤ <40	51	3.19(.53) ab	4.99**	2.97(.52) ab	3.70*	2.98(.58)	2.36	3.24(.44) ab	2.73*	3.20(.45) a	3.52*	3.18(.49)	2.15
	40 ≤ <50	53	2.19(.51) a		2.78(.57) a		2.79(.40)		3.27(.42) ab		3.11(.47) a		3.09(.48)	
	50 ≤	24	2.93(.41) a		2.81(.48) a		2.85(.45)		3.03(.50) a		3.10(.53) a		3.12(.49)	
Level of schooling	≤ H.S.Gr.	35	3.06(.44)		2.82(.53)		2.81(.59)		3.23(.49)		3.18(.52)		3.21(.51)	
	C.Gr.	29	2.94(.48)	1.02	2.82(.53)	.99	2.80(.51)	2.01	3.23(.41)	.36	3.10(.49)	.43	3.10(.47)	.39
	U.Gr.	72	3.10(.58)		2.95(.57)		2.99(.51)		3.13(.48)		3.20(.48)		3.15(.50)	
Children	0	15	3.17(.68)		3.08(.88)		2.95(.78)		3.19(.65)		3.31(.57)		3.29(.59)	
	1	32	3.11(.48)	.65	2.99(.49)	1.43	3.01(.49)	1.14	3.26(.45)	.41	3.29(.51)	1.40	3.25(.52)	1.27
	2	79	3.03(.51)		2.83(.52)		2.87(.51)		3.17(.43)		3.11(.46)		3.11(.46)	
	3 ≤	10	2.92(.58)		2.76(.35)		2.68(.44)		3.10(.48)		3.12(.51)		3.02(.52)	
Level of family economy	≤ 300	21	3.12(.57)		2.93(.63)		2.87(.58)		3.16(.60)		3.17(.56)		3.18(.58)	
	301 ≤ ≤ 400	22	3.03(.39)	1.12	2.80(.43)	.54	2.78(.44)	.54	3.16(.38)	.38	3.12(.55)	.34	3.10(.40)	.26
	401 ≤ ≤ 500	14	3.27(.50)		3.03(.43)		2.97(.42)		3.31(.46)		3.29(.55)		3.21(.59)	
	501 ≤	79	3.01(.55)		2.88(.58)		2.93(.57)		3.18(.45)		3.17(.44)		3.15(.48)	

*p<.05, **p<.01, ***p<.001

Table 3. Difference of Family Function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6)

Variables	Categories	N	Family Function				Life Satisfaction	
			Adaptability		Cohesion		M(SD)	F
			M(SD)	F	M(SD)	F		
Age	>30	8	2.91(.23)		3.16(.35)		5.30(1.40)	
	30 ≤ <40	51	2.91(.34)	1.35	3.08(.37)	1.46	4.55(1.26)	2.77
	40 ≤ <50	53	2.85(.35)		2.97(.37)		4.16(1.45)	
	50 ≤	24	2.75(.38)		2.96(.38)		4.97(1.63)	
Level of schooling	≤ H.S.Gr.	35	2.88(.36)		3.01(.41)		4.25(1.67)	
	Col.Gr.	29	2.84(.32)	.10	2.95(.30)	.93	4.26(1.51)	1.95
	Uni.Gr.	72	2.85(.35)		3.06(.38)		4.74(1.27)	
Children	0	15	2.90(.21)		3.10(.31)		5.21(1.28)	
	1	32	2.93(.34)	1.02	3.09(.41)	1.04	4.51(1.24)	1.51
	2	79	2.82(.37)		2.90(.37)		4.36(1.54)	
	3 ≤	10	2.78(.34)		2.92(.33)		4.66(1.27)	
Level of family economy	≤ 300	21	2.80(.34)		2.92(.35)		3.73(3.88) a	
	301 ≤ ≤ 400	22	2.87(.51)	.88	3.02(.41)	.64	3.88(1.29) ab	6.93***
	401 ≤ ≤ 500	14	2.99(.20)		2.99(.35)		4.20(1.29) ab	
	501 ≤	79	2.84(.31)		3.07(.37)		4.95(1.68) b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amily Rituals, Family Function and Life Satisfaction (N=136)

	1	2	3	4	5	6	7	8	9
1. Occurrence	-								
2. Routine	.84**	-							
3. Deliberateness	.77**	.87**	-						
4. Attendance	.76**	.75**	.70**	-					
5. Affect	.70**	.75**	.65**	.84**	-				
6. Symbolic significance	.66**	.74**	.63**	.83**	.89**	-			
7. Cohesion	.58**	.66**	.64**	.59**	.68**	.62**	-		
8. Adaptability	.39**	.49**	.47**	.38**	.47**	.42**	.72**	-	
9. Life Satisfaction	.42**	.50**	.46**	.43**	.52**	.49**	.45**	.25**	-
M	3.06	2.89	2.90	3.19	3.18	3.16	3.02	2.86	4.51
SD	.35	.55	.54	.46	.49	.49	.37	.35	1.44

*p<.05, **p<.01, ***p<.001

Table 5. The effect of family rituals's types on family cohesion (N=136)

	Family Cohesion				
	B	β	R ²	ΔR^2	F
Constant	1.37				
Affect	.52	.68***	.47		116.55***
Deliberateness	.23	.34***	.53	.07	75.29***

*p<.05, ***p<.001

Table 6. The effect of family rituals's types on family adaptability (N=136)

	Family Adaptability				
	B	β	R ²	ΔR^2	F
Constant	1.98				
Routine	.30	.49***	.24		41.15***
Affect	.17	.24*	.26	.03	23.40***

*p<.05, ***p<.001

3.5 가족의례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례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1.76이고 VIF 지수는 1.0~2.31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감정적 투자와 관습성 순으로 영향을 주며, 감정적 투자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설명력은 27%이다. 관습성이 추가되어

30%를 설명하였다. 가족의례 시 감정적 투자와 관습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The effect of family rituals's types on life satisfaction (N=136)

	Life Satisfaction				
	B	β	R ²	ΔR^2	F
Constant	-.37				
Affect	1.54	.52***	.27		49.66***
Routine	.62	.24*	.30	.03	27.83***

*p<.05, ***p<.001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30세 미만의 연령이 30세 이상의 연령보다 감정적 투자를 더 많이 하고, 40세 이상의 연령보다 정규성과 관습성을 더 많이 하며, 50세 이상의 연령보다 참여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서구화된 가정의례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21], 20대가 가족여가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2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30세미만의 연령이 가족생활주기 상 신혼기 혹은 자녀 출산기, 자녀양육 초기에 해당되므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가족의례를 만들거나 시도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다른 연령들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가 아직 없거나 어리기 때문에 가족의례의 참여 또한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족의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족구성원들에 비해 기혼여성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도 감정적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이유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40세 이상일 경우 어느 정도의 결혼 지속년수가 예상되므로 자신만의 가족의례의 형태를 이미 갖추었을 것이고, 50세 이상일 경우 성인 자녀기에 해당되므로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더 선호하는 가족생활주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의례의 구성요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시점은 30대 이전이 가장 적절할 것이고,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30대 초반도 적절한 개입연령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자녀의 수, 학력, 소득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족의례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밝힌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례의 구성요소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가족의례 구성요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23-25]와 일치한다.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좀 더 여유 있는 삶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중 소득수준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8.1%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자녀의 수, 연령, 학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삶의 만족도에 연령차가 없다는 연구결과[26], 중년여성의 학력과 총 자녀의 수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27]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중 대졸이상의 학력이 52.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과도 관련시켜 보면, 자신의 교육수준의 고저에 대한 특별한 지각을 하지 않는다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흔히 다자녀가족이라 하면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자녀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녀의 수가 1명과 2명인 대상자들이 전체의 81.6%에 해당되므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자녀의 유무나 다자녀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한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령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령과 생물학적인 변화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가족생활주기와 연령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적응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28]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체가 가족기능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기 때

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감정적 투자와 계획성이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아지고, 관습성과 감정적 투자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여가활동이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29]와 가족의례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적응성과 응집성이 높다고 연구 결과[30], 도시주부들이 가족식사에 절 수행정도가 높고 가정의례를 잘 수행할수록 가족응집성이 높다고 연구 결과와[8]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가족의례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부부가 공동으로 하거나 기혼여성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기대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가족원들의 정서적인 밀착과 상호작용을 도와 가족적응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명절의례나 식사의례, 생일의례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족만의 정해진 형식이 자리 잡게 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증가되면서 감정적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새로운 변화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그 가족은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이 낮은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계획성, 관습성, 감정적 투자가 비교적 높은 가족활동들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식사의례, 가족생일의례, 명절의례는 관습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주말여가의례와 가족휴가의례는 계획성과 감정적 투자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의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함께 그 이면의 실행과 관련된 각 가족 구성원들의 주관적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31] 가족의례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족원들과의 합의나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정서적 투자도 증가될 것이고 그 가족만의 새로운 가족의례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서 가족기능 또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감정적 투자와 관습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례활동이 활발한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25]와 규칙적인 관습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는 유능감을 더 느낀다는 연구 결과[32]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가족의례는 결혼기간의 증가와 함께 그 횟수가 늘어나고 반복되면서 그 가족만의 정형화된 혹은 익숙한 의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가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가족의례들은 가족원들의 참여율 또한 높일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은 다음 의례에 대한 안정적인 기대감이나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기혼여성에게 좀 더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의례를 위한 준비나 결정과정에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므로, 자신의 주도하에 이뤄진 가족의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낄 것이고 이는 삶에 대한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기혼여성들이 기혼 남성들에 비해 좀 더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혼여성들이 가족의례를 통해 감정적 투자와 관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연령은 가족의례 구성요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소득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가족의례 구성요소중 감정적 투자와 계획성이 가족응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습성과 감정적 투자는 가족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의례 구성요소중 감정적 투자와 관습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혼 여성들이므로 변인들의 성차를 밝힐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연령의 기혼 남성들을 포함한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중 감정적 투자는 가족기능과 삶의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투자는 가족의례 활동에 대해 가족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투자하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즐거움 시간을 보낸다’, ‘기쁨을 준다’ 등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감정적 표현에 차이가 있고, 때론 가족의례 시 부정적인 감정들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가족의례 시 자신이 느끼는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삶의 만족도는 기혼여성 본인 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 혹은 가족생활주기와 같은 자녀 및 가족관련 요인

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자녀관련 변인으로는 자녀의 수에 대한 응답만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자녀의 나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유무, 자녀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자녀 특성들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5가지의 가족의례를 6가지의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는데, 각 가족별로 좀 더 익숙한 가족의례가 있을 것이고 그 영향력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가족의 의례 선호도를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J. D. Lee, K. S. Kim, H. S. Moon, H. A. Song, I. M. Kim, Understanding of Marriage and Family, Shin-Jeong, p. 48, 2000.
- [2] D. J. Sim, Elementary schoolchild in NoWonGu academy, 'suicide in conclusion', Available Fr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60804_0014266903 NEWSIS, cited 2016 Aug 20.
- [3] I. Y. Choi, Middle school student breaks into the teacher's room in Daegu, Available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63767&code=61121111&sid1=soc> KookMinIlBo, cited 2016 Jul 7.
- [4] C. S. Park, Population Healthy association, "Women in childbed 90.5%, suffer from postnatal depression", Available From: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54666, RealTime News Media, cited 2015 Dec 7.
- [5] W. J. Doherty, The intentional family : How to build family ties in our modern world, MA: Addison-Welsey Publishing. 1997.
- [6] Wolin, S. J., & Bennett, L. A. Family rituals. Family Process, vol. 23, pp. 401-420, 1984
- [7] Leon, K. & Jacobvitz, D. B.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family ritual quality :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amily Process, vol. 42, pp. 419-432, 2003
- [8] J. W. Lee, Y. H. Kim, Practice of Everyday Life Proprieties, Dynamics of Family System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1, no. 2, pp. 1-18, 2002.
- [9] S. M.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eisure Life between Urban and Rural Households,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ol. 2, pp. 47-58, 1997.
- [10] W. J. Doherty, *The Intentional family : Simple rituals to strengthen family ties*, New York : Harper. 2002.

- [11] Olson, H. D., Russell, S. C., & Sprenkel, D. 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vol. 22, pp. 69-83, 1983.
- [12] H. J. Choi,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Ritual and Marital Satisfaction of Wife, Unpublished Mater's thesis, Bu-San University, 2009.
- [13] J. K. Kim, A study on marital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 As related to establishment family and expanding family, Unpublished Mater's thesis, Lee Hwa University, 1991.
- [14] J. B. Lim, J. S. Lee, Family Life Satisfaction of the Expanding Family, *Husbands and Wiv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27, no. 3, pp. 117-132, 1989.
- [15] H. J. Min, The life course events and the career interruption among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4, no. 1, pp. 53-72, 2011.
- [16] B. H. Fiese, Dimensions of family rituals across two generations : Relation to adolescent identity. *Family Process*, vol. 31, pp. 151-162, 1992.
- [17] D. H. Olson, J. Portner, Y. Lave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In D. H. Olson, H. I. Macubbin, H. Barnes, A. Larsen, M. Muzen, & M. Wilson, *Family Inaentories*, University of Minnesota publishing, 1985.
- [18] Y. H. Kim,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couple 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 Myung University, 1990.
- [19] E. R. Diener, R. A. Emoms, R. J. Larsen, &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pp. 71-75, 1985, Diener, Emoms, Larsen & Griffin(1985)
DOI: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20] E. M. Choi,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upon Adult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Unpublished Ma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9.
- [21] S. W. Ok, J. H. Kim, H. I. Park, H. Y. Shin, G. H. Han, S. J. Koh, Disintegr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Family M. A./ Kinship Structure Among the Rural Families of Korea,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8, no. 10, pp. 157-180, 2000.
- [22] O. H. Jung, H. Y. Hong, The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and Social Support on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vol. 3, no. 2, pp. 51-67, 2011.
- [23] O. H. Jo, K. S. Kim,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Working Wives by relate variables -Focused on personal, family and work relate variab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0, no. 2, pp. 1-29, 2005.
- [24] K. Y. Shin, S. H. Ok, A study on the middle - aged housewives' family role performance and psychological well - be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5, no. 1, pp. 111-128, 1997.
- [25] E. Y. Kim, Study on the Perception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Family Role Saliency in Accordance with Family Rituals and the Type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Unpublished Mater's thesis, Joung Ang University, 2012.
- [26] J. S. Huh, Life Satisfaction of Community Resident Elderly Persons,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24, pp. 127-151, 2004.
- [27] H. K. Kwan, The Effect of the Quality of Life as Recognized by the Middle Aged Women on the Self Esteem and Satisfaction of Life, Unpublished Mater's thesis, Young-Nam University, 2011.
- [28] S. M. Lim, Family satisfaction with the family cohesion, adaptability, and family typ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Unpublished Ma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1995.
- [29] K. Y.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nd family cohesion including adaptability with married wome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1999.
- [30] G. E .Dawn, H. W. Lynda, Adolescent Satisfaction in Family Rituals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Development Systems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6, no. 4, pp. 406-414, 2002.
- [31] H. S. Jung, G. S, Ryu, *Family Relationship*, 2006.
- [32] Brody, G. H., & Flor, D. L. Ma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 family processes and child adjustment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3, pp. 1000-1011, 1997.

배 재 현(Jae-Hyun Bae)

[정회원]



- 2000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가정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이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유아교육, 가족학

박 세 정(Se-Jeong Park)

[정회원]



- 2000년 2월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아동이상 및 복지(문학석사)
- 2008년 2월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사회학박사)
- 2008년 8월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사회복지학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육, 아동복지, 사회학